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6호 【루게 제24894호】 주제104 (2015)년 4월 26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 성대히 진행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가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5대 훈련방침을 제시하신 40돐,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4대 훈련원칙을 제시하신 25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싸움준비완성에서 변이 나는 해로 되도록 하기 위한 백두산훈련열풍이 전군에 융암처럼 끓어번지고있는 시기에 소집되었다.

대회에서는 지난 기간 인민군대 전투정치훈련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들이 분석총화되었으며, 첨예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훈련혁명을 일으켜 인민군대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철벽으로 다져나가는데서 나오는 과업과 방도들이 토의되었다.

대회에는 당의 훈련제일주의방침을 피똥는 심장에 새겨안고 훈련장마다에서 총정의 땀방울을 흘리며 기적과 위훈의 자욱을 새겨온 전군의 지휘성원들과 훈련일군들, 군사교육기관, 련관부분의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수령결사옹위, 조국결사수호의 총대위력을 백두의 훈련열풍으로 백배천배로 더욱 억세게 다져나갈 참가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정이 대회장에 차넘치고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한 무장장비들과 《5대 훈련방침》, 《4대 훈련원칙》이라는 글발이 형성되어있는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백두산모형과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라는 글발이 걸려있었다.

주석단에는 조선인민군 륭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군기들이 세워져있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번 대회가 전체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와 적극적인 참가밑에 자기 사업을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인민군대의 훈련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고 백두산혁명강군의 불패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역사적인 리정표를 마련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대회개회를 선언하시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주악되었다.

대회보고를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륭군대장 리영길동지가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밑에 진행된 이번 대회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훈련부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결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훈련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있으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대회장에는 또한 《전군을 김일성-김정일주의 화하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일당백주호를 높이 들고 백두산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자!》, 《당의 훈련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자!》라는 구호들과 선전화가 나붙어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대회참가자들에게 따듯이 답례하시며 조국보위와 강성국가건설에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을 펼쳐가고있는 그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다.

황병서동지, 현영철동지, 리영길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모범적인 훈련일군들, 군인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개회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온

나라가 당중앙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하루빨리 사회주의문명강국의 뿌리를 다지기 위한 투쟁의 전구마다에서 속도전의 불바람을 일으키고있는 격동적인 격변의 시기에 불패의 조선인민군의 전투적위력을 더욱 백방으로 다지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훈련장에서 전사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색바랜 군복을 언제 한번 벗을 사이 없이 전투정치훈련에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가는 대회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으며 전군의 지휘성원들과 훈련일군들, 사회주의조국의 모든 초소들을 믿음직하게 지키고있는 영웅한 전투원들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주체적인 군사훈련사상을 제시하시고 군건설과 군사활동에 빛나게 구현하시어 백두산총대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였으며 한세대에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는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군대앞에 제시하신 5대 훈련방침과 《일당백》구호는 우리 혁명무력의 훈련목표를 밝혀주는 백승의 표대이며 《나를 따라 앞으로!》의 빨찌산구호는 전군을 훈련으로 부르는 고무적기치로 된다.

위대한 김정은대원수님께서는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인민군대에서 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최정에혁명강군건설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